

바티칸 세계주교대의원대회 “이혼·동성에 포용” 파장 확산

가톨릭 2000년 禁忌 깨지나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죄악시해온 이혼과 동성애 등을 포용할 수도 있다는 문서를 발표함에 대해 일부 주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주말 최종보고서가 채택되면 1년 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카톨릭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 주교 “교회의 가르침서 벗어난 것 용납 못해” 반발

최종 보고서 채택 관심 속 가톨릭 내부 보수·혁명 갈등 예고

◇2000년 금기(禁忌) 깨지나=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대회(주교 시노드)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동성애자들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을 환영하는 교회를 만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죄악시해 온 동성애를 종교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동성 결혼을 금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또 교회가 이혼한 사람들을 환대해야 하며 세속적 결혼은 가톨릭 신자들의 동거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동성애가 “본질적으로 비정상”이며 동거부부들은 죄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규정하는 전통교리 문서들의 언명이 빠져있는 대신에 포용과 환대라는 용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 주교들 강력 반발=몇몇

유명 전통주의 주교들은 보고서가 공개되자 즉각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주교 시노드에 참석하고 있는 스타니스와브 가데키 폴란드 추기경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아공의 윌프리드 폭스 내피어 추기경과 레이먼드 버크 미국 추기경도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반대편의 입장을 표했다. 내피어 추기경은 “문제의 보고서가 주교 시노드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 “최종보고서는 특정 분과가 아닌 시노드 전체의 비전을 보여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티칸 최고법원 원장인 버크 추기경은 바티칸 공보부가 예비보고서의 논조에 반대하는 “주교들의 고정적인 숫자”를 반영치 않은 “왜곡된 정보”를 풀었다고 비난했다.

◇최종 보고서 채택 관심 속 가톨릭 내부 보수·혁명 갈등=주교 시노드 주최 측은 일부 주교들의 반

발이 거세져 보고서는 향후 수정될 단순한 실무자료이며 언론에 의해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부분의 집필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이번 시노드의 특별서기로 임명된 몬시뇰 브루노 포르테. 그간 저술활동을 통해 ‘비정상적’ 결합에 관용적 경향을 내비친 이탈리아 신학자다.

바티칸은 예비보고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최종보고서의 핵심을 둘러싸고 이념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상황을 시사했다.

예비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나온 바티칸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교들이 일단 보고서를 긍정평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최종 버전의 균형을 잡기 위해 상당한 수정이 필요함을 건넸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

일부 주교들은 최종보고서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동성애와 동거에 대해 “교회에서 이런 경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소개돼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문제에 대해 관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회개의 길을 걷는다면 영성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은 풀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피해나가서는 안된다는 게 전통주의자들의 목소리다. 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민주화 시위대가 설치해놓은 바리케이드 철거를 시작한 가운데 15일(현지시간) 민주화 시위대가 홍콩 중앙정부 인근 도로의 바리케이드를 에워싸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경찰, 시위대와 충돌...45명 체포 긴장 고조

도심 바리케이드 철거과정 시민 구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내놓은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가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현지시간) 새벽 시위대와 경찰이 바리케이드 철거 과정에서 충돌했다. 시위대는 전날 경찰이 애드미럴티(金鐘) 남부지역의 8차선 도로인 쿤스웨이(金鐘)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자 애드미럴티 정부청사 북쪽의 터널 도로인 룩잉(龍和) 로드 에 바리케이드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자 경찰은 이날 새벽 수백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시위대에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등 진압 작전 끝에 1시간 만에 바리케이드를 해체하고 이 도로를 다시 통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위대 45명을 불법진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경찰의 바리케이드 철거에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경찰 4명이 우산 살에 눈 주머니 찢려거나 어깨가 빠는 등 부상했으며, 일

부 시위대도 다쳤다고 SCMP는 전했다.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공민당(公民黨) 당원을 수감제한 채 구석에 끌어 앉혀 집단 구타하는 동영상도 TVB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시위대가 도심 곳곳에 설치한 바리케이드 철거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시위대는 도로 점거 시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대체해 곳곳에서 경찰 또는 시위에 반대하는 친중(親中) 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도 쿡스웨이베리와 애드미럴티 남부 지역에 설치된 일부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이를 경찰 장벽으로 대체했다.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린춘잉(梁振英) 행정장관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SCMP가 전했다. 홍콩대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1012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링 장관 지지율은 40.6%로 지난달보다 2.6%포인트 떨어지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친중 단체 회원들은 이날 새벽에도 대표적인 반중(反中) 매체인 빈과일보를 발행하는 넥스트 미디어 그룹 본사 출입문을 봉쇄한 채 시위를 벌였다. 이날로 18일째 접어든 홍콩 도심 점거 시위는 전인대가 8월 말 발표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오바마 “IS 공습 장기전 될 것”

국제연합전선 동참 국방 수장들과 회동 대책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곽의 앤드루 공군기지(Andrew AFB)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전선에 동참하는 20여개 국의 군 및 국방 수장들과 회동했다. 온종일 진행된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각국 지도부는 미군이 주도하는 IS에 대한 공습을 효과적으로 감행할 전략과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국과 함께 공습 작전

을 벌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아랍 동맹국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파트너 국가, 시리아 및 이라크와 국경을 맞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 그리고 호주·캐나다 등이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마틴 오닐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앤드루 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동맹들이 IS 격퇴라는 중점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지역 내 부

파주의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등 전장 밖으로도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공습이 IS에 맞서 전 세계가 참여하는 작전이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공습 작전은 장기전일 것”이라며 “때로는 전진하는 시점도 있고 후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시 에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주도의 IS 격퇴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중국 지도부 “홍콩시위 평화적 해결” 주문

중국 지도부가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홍콩 정부에 주문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홍콩 시위가 발생한 첫 날인 지난달 28일 홍콩 경찰이 최루탄 발사 등으로 강경대응하자 긴급 회의를 열고 “강경 진압은 경찰

한 대응”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위 시민·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뒤웨이(多維)가 14일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는 린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의 강압적인

시위 진압 방식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시위대의 요구 사항과 건의를 깊이 청취하라고 주문했다고 뒤웨이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에 따라 홍콩 정부와 경찰의 시위 대응이 법 절차를 준수하는 온건한 방식을 바꾸면서 한때 학생들과의 대화가 시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그러나 홍콩의 복잡한 사회 현실을 고려해 린춘잉 장관에 대한 신임을 유지하면서 그를 도중에 낙마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상무위원회에서는 시 주석이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영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대전남대학교**

남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에너지 절감의 혁명!!

에너지 절감률: **절감**
 - 등유대비 68%
 - 전기 54%
 - 도시가스 42%

고정비용을 줄여라!!

지역 특판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 히트 펌프 보일러 **남부 방전문점 대표번호 1644-8983**